



자연이 준 냉장고 ‘소정방폭포’ 제주전역에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서귀포시 소정방폭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착한가격업소 35개소 신규 지정

도,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제주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35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226개소로 2018년 125개소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선정된 업소는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다양한 선정혜택을 받는다.

우선 착한가격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 매월 60t(6만 4800원)까지 감면, 해충방역(연 2회) 지원, 전기요금(20만 원 내외) 지원, 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출이자율의 최대 2.8%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원재료비 인상 등 고물가로 착한가격업소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재료비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에 공공기관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언론 홍보도 강화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평가단의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분야 현장평가와 체납, 과태료 처분 여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를 종합 확인해 선정된다.

이태윤기자

코로나19 속 높은 업무강도·열악한 처우로 ‘번아웃’ 원 전 지사 공약 무산·민선 8기도 정책과제 소극적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민선8기 제주도정이 이와 관련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01개 ‘민선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중 보건·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처우개선 관련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이행계획으로 제시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확대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임상 교수 지원 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 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등이 담겼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공중보건장학생(의과

대·간호대) 선발 및 지원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공보건 의료 인력 표준임금제 도입과 관련 해선, “읍·면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공공보건인력 표준임금제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후 도입 여부 결정”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민선7기 도정 공약사항 중 미해결 과제로 남았던 ‘간호인력 처우개선’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이미 추진이 불발됐던 내용들로, 사실상 지난 도정의 답습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표준임금제는 지난 도정 공약 이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이미 불발된 사안임에도 이행계획으로 언급됐다.

앞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은 간

호인력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놓고 2019년부터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제주도는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설정해 보장하자는 표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민간병원에 표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국내외 시행 사례가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했다.

이후 용역 결과 제주도와 병원이 간호사에게 매달 적립금을 지원하는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의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간호인력 3000명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심의를 요청했지만, ‘재검토’ 통보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관련 공약 역

시 민선7기 공약 중 유일한 도민배심위원단의 ‘미승인’ 건으로 남았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공중보건장학생(의과대·간호대) 지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제도들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도는 보건인력 처우개선과 관련,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제주대학교병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하는 2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인력 표준임금제 도입은 내부적으로 내용이 거론됐고 검토 이후 보고된 사항이지만, 국내외 사례도 없고 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실제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 등 지난 도정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불발됐던 점도 있고 별다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조성 한림종합운동장 내 12월 준공

제주시는 한림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인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에 건립되는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체육시설 지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면적 283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공공실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50%에 이른다. 제주시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당초 계획했던 7월보다 준공일이 늦어졌으나 건축관계자들과 물량·자재 조정 등 협의를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재외제주도민증 발급 매년 줄어

시행 11년만에 최근 발급자 10만명 넘었으나 한 해 발급자는 2만1000여명서 3495명으로 ‘뚝’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자 수가 시행 1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지만, 매해 발급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혜택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 제주도민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고향방문을 위해 헌신한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도민으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제주도 재외도민지원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자 수는 시행 첫해인 2011년과 비교해 83% 가량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도가 집계한 재외도민증 발

급현황을 보면 2011년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자는 2만1617명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1만2824명으로 급감한 뒤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에는 6858명으로 줄었다.

이후 2017년 7033건, 2018년 8277건으로 잠시 반등 조짐을 보였으나, 2019년 6383명, 2020년 4223명, 2021년 3495명 등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378명이 재외제주도민증을 발급 받아 누적 발급건수는 10만33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영향 탓도 크지만, 각종 혜택 수준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탓도 크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는 제주출·도착 항공료, 여객선 운임, 시설관광지(58개소) 및 골프장(22개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료 지원과 관련해 저가항공사가 주말·성수기에는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할인혜택을 적용한 금액보다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최저가항공권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민증을 발급 받고 주어지는 혜택의 장점이 사라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급자 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최근 방역이 풀리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수확기 때도 이젠 중성화 비료!

토양개량 및 토양 pH조절

보보 입상 100% 수용성

(10-5-25+특수물질 8종)



마늘·양파·더덕·감자·비데기 일때 300~400평 1포 사용

작년추진

식미감 향상

양분이용률 향상

보수력 및 보비력 향상

자기면역력 증가

수확량 증가

완성한 뿌리 발육

품질 향상

특수 칼리(K) 25% 함유!!

빨리 용출되는 칼리부터 천천히 방출되는 칼리까지 여러종류의 칼리가 들어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인파고정판 + 인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